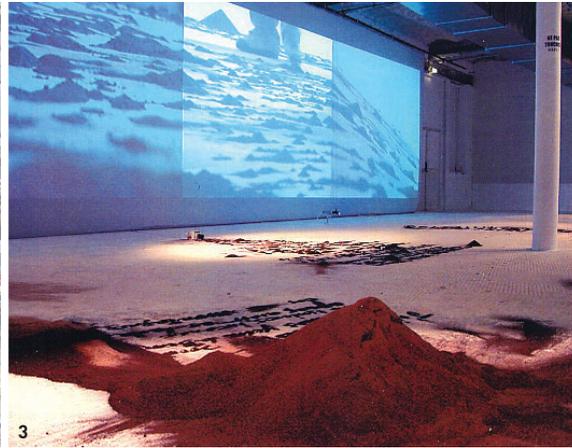


제6회 광주 비엔날레

Propose of Biennale

2006년의 젊은 미술 앞에서 두통을 경험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라도 걱정 말자. 현대 미술의 향연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전통과 새로운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고민만 염두에 두고 발걸음을 옮기면, 첨단 미디어 아트 앞에서도 누구나 유쾌하게 배부를 수 있다. 에디터 정명호 자료 제공 광주비엔날레사무국(062-608-4114)



1 대상 수상작인 마이클 주의 <보디 오피스케터스>는 전남 보성군 대원사에서 가져온 불상 주변을 낮선 카메라 워크로 들여다본다. 2 공동으로 대상을 받은 송동의 <버릴 것 없는>은 이 빠진 세숫대야나 빈 페트병처럼 작가의 어머니가 30여 년 동안 모아온 다양한 물건들을 펼쳐놓은 설치 작품. 3 여러 미술 장르가 뒤엉킨 김중기의 퍼포먼스. 4 비디오 아티스트 크리스 웰스비(Chris Welsby)의 <Trees in Winter>.

지금 광주는 단풍보다 진한 현대 미술로 물들어 있다. '열풍변주곡(Fever Variation)'이라는 주제를 놓고 31개국에서 찾아온 106명의 작가가 펼쳐놓은 작품들은 내장산의 단풍보다 눈부시다. 기본적인 회화와 판화, 조각은 물론이고 21세기 현대 미술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설치 미술, 그리고 비디오와 프로젝션 스크린을 화폭 삼아 움직이는 미디어 아트까지 작품들은 아티스트의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젊다. 패션에서처럼 '복고풍'은 존재하지 않는 21세기의 미술 현상이 궁금하다면 당장 광주행 티켓을 끊어야 하지 않을까? 2년마다 찾아오는 비엔날레는 전 지구적 현대 미술의 낯선 움직임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처럼 뚜렷한 팽창을 보이면서 2006년의 르누아르와 백남준을 찾게 만든다.

주제로 삼은 '열풍변주곡'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현대 미술에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아시아의 내적 에너지를 담아내고자 하는 전략이다. 덕분에 광주 비엔날레는 동양적 모티브로 가득하다. 메인 전시인 <첫장>과 <마지막 전시>에서 각각 아시아의 뿌리와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데, 서구 중심적인 현대 미술사에서 외면받거나 소외되어온 아시아 미술의 전통이 어떻게 미래를 맞고 있는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서구인들의 판타지에 불과한 오리엔탈리즘보다는 아시아의 정신과 사상을 우리의 시선으로 탐미하고 있다는 것부터 우선 반가운 일.

대상을 받은 미국 작가 마이클 주의 <보디 오피스케터스>만 하더라도 비엔날레의 의도된 성격을 명쾌하게 확인시켜준다. 전남 보성군 대원사에서 가져온 불상을 전시장에 설치하고 불상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눈으로 바라본 불상과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찍은 불상을 관객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은 오늘날 아시아적 표상인 불상과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공동으로 대상을 받은 중국 작가 송동의 설치 작품 <버릴 것 없는> 역시 이 빠진 세숫대야나 빈 페트병처럼 작가의 어머니가 30여 년 동안 모아온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관에 펼쳐놓는데,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있으니 버리지 않는다'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따뜻하게 공감케 만든다. 주제에 집중한 때문인지 이번 비엔날레에는 태생적으로 아시아인이지만, 해외에서 활발히 작업하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들이 감각하는 고향 땅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오던 곳에 비해 어지간히 낯설기 때문.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국제 미술 학술 행사까지 동반하면서 전체 주제를 '변주' 하는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1일까지 계속된다. ☎